



창업 시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이다.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금 마련 고생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증명한다. 중요하고 어려운 자금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창업 시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 정직하게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등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거짓이 발견되면 투자검토는 즉시 중단된다.

◆ 쓸데없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용어집을 뒤적이면서 투자를 결정하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용어나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설명을 해야한다.

◆ 제품보다 시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흔히 하는 실수는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다가 시장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제품자체보다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고객의 반응이나 진행되고 있는 계약 등 공신력있는 출처를 가진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시장침투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 기업에 투자결정을 내리는 투자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을 경영하는 내부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업에 투자결정을 내리는 투자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무리

두터운 사업계획서도 투자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 계획서는 항상 변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한번 만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 탄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계획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점검, 작성되어야 한다.

◆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창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아이템을 제3자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제1의 목표이다.

◆ 객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자만심이 되거나 자신의 의견에 몰입되어 갇혀 버린다면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거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 핵심내용을 강조, 부각시켜야 하며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보편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아이템의 핵심을 중점 부각시키고 그것이 기술적 내용일 경우라도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 자금조달 운용계획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가정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은 순조로울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된다면 판매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 원칙이 중요하다.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과 운영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paran.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